

장성산 K-푸드, 미국서 330만달러 수출협약 성과

김 군수, 지난달 24~31일 미국서 북미 최대규모 한인마트 판촉 참여 냉동김밥·매실김치 등 계약 체결 “세계인 사로잡을 먹거리 지속 발굴”

냉동김밥, 쌀과자, 매실김치 등 장성산 ‘K-푸드’가 총 330만불 규모 수출협약을 맺으며 미국시장 개척을 본격화 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4~31일 미국을 순방해 판촉행사를 가졌다. 순방길에는 김한중 군수와 장성지역 식품기업 ㈜현대푸드시스템 윤미숙 대표, 올바름 김정광 대표, 새벽팍김치 김의병 대표가 동행했다. 이들은 뉴욕 한국문화원 전남정원 준공식, 북미 최대규모 한인마트 ‘H-마트’ 전남산 농특산식품 판촉행사, 뉴저지 ‘한복의날’ 기념식 등에 참석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장성 먹거리를 알렸다. 판촉행사의 성과는 ‘계약체결’로 나타났다. 새벽팍이 ‘하이리 마케팅’ 본사와 30만달러 규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한남체인 플래튼점은 장성군과 300만달러 규모 농특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계약 소식은 미국 순방 이후에도 이어졌다. 올바름 쌀과자가 로스앤젤레스 유



장성군이 김한중 장성군수와 장성지역 식품기업 대표들이 지난달 24~31일 미국을 방문해 판촉행사를 열고 총 330만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다.

통점에 약 1000만원 가량 수출됐으며 ㈜현대푸드시스템은 4000만원 상당의 냉동김밥과 잡채를 뉴욕에 수출하기로 했다. 2013년 창립한 ㈜현대푸드시스템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냉동식품 수출 역량을 갖춘 즉석식품 제조업체다. 전국 1만여 개 매장에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전라남도 냉동김밥 생산 및 상품화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해외시장 진출에 뛰어 들었다. 수출길에 오른 냉동김밥은 ‘슈퍼푸드’

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남산 김과 장성쌀로 만들었다. 유아용 쌀과자를 생산하는 기업 올바름은 ‘독도 쌀과자’라는 애칭으로 유명하다. 2021년부터 포장지 뒷면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문구와 사진을 넣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바이어로부터 독도 문구를 없애는 조건으로 연매출 15%에 달하는 계약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일화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해협(HACCP) 인증을 받았으며 화학첨가물 없이 원재료만으로 맛과 색을 낸다. 새벽팍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 지난해 열린 제12회 대한민국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표 메뉴인 ‘참매실 새벽김치’는 매실 원액과 과일즙을 넣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지녔다. 장성군이 배추김치 양념 숙냉기 설비 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성장 장성’의 안심 먹거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맛의 고장 전남도와 손잡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총동 구매 유도 주의 당부

영광군은 최근 농한기를 이용한 불법 방문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 13일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과 영광청년회의소, 연합청년회, 연합번영회 등 60여 명이 참석해 만남의 광장에서 영광터미널까지 이동하며 홍보 및 피해예방 전단지 배부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일명 ‘뺏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 피해 사례로는 사은품 제공, 공짜 상품권, 무료 공연 등의 유인책을 통해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에 고가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해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곳을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만약 물품 구매 시에는 영수증 챙기기, 물건바로 뜯지 않기(환불)와 과대·허위 광고 등의 행위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50-5148)으로 신고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주의사항을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를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불법행위로 예상되는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 허위·과대 광고,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수험생 대상 무료 치아 스케일링 나주시보건소

나주시는 수능 이후인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 수험표를 지참해온 고교·재수생을 대상으로 보건소 본소 구강진료실에서 무료 치아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 스케일링은 평소 학업으로 인해 구강 건강관리가 어려웠던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로 구강검진, 1:1맞춤형 구강건강관리교육, 불소양치용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사전 전화 예약 후 수험표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구강진료실을 방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치아 건강을 돌보는 상쾌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문 열어 지하 1층·지상 3층 종합복지시설

장성군이 13일 ‘가족행복센터’ 개관식을 갖고 한층 향상된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가족행복센터(장성을 역전로 199-10)는 대지면적 3472㎡, 바닥면적 295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복지시설이다. 지하 1층에는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이 있어 취미·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접근성 좋은 1층은 아이와 부모,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으며 소통공간인 행복마루, 마음나루, 지혜나루도 갖추고 있다. 2·3층에는 지역 내 주요 복지기관들이 모여 있다. 2층은 가족센터와 여성회관, 3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다. 황룡강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하늘마루도 조성돼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보성군 관계자들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문덕면, 연탄 나눔 봉사

보성군이 지난 12일 추운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溫)마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나눔은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중 연탄에 의

존하는 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장씩 총 9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연탄나눔운동 보성군지부(위원장 선형수)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문덕면 북

지기동대와희망드림협의체, 문덕면사무소 직원 등 22명이 함께 참여해 취약계층에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박삼석 문덕면장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들은 여전히 연탄 의존도가 높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담양군, 2025년 본예산 5265억원 편성

지난해 대비 7.7% 증가

담양군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에 둔 5265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원(7.8%)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가 82억원으로 0.6억원(0.8%)이 증가했다.

본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383억원, 세외수입 242억원, 지방교부세 2061억원, 국·도비 보조금 2293억원, 조정교부금 110억원, 보전 수입 17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1251억원(23.76%), 농업 분야 1095억원(20.80%), 환경 분야 792억원(15.04%), 문화 및 관광 분야 320억원(6.07%) 등의 순으로 편성해 두터운 약

자 복지 등 민생경제 회복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사업의 집중 추진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의회에 제출된 2025년 본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2년 연속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구례군,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총 57명 선발...9100만원 지급

구례군은 하반기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자 57명을 선발하고 장학금 9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 개최한 인재육성기금 심의회에서 대학생 47명과 FFK대회(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입상자 9명, 검정고시 합격자 1명을 하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실 납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대회 입상자에게 금 150만원, 은 100만원, 동 7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 꿈드림’ 장학금이 시행돼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도 30만원이 지급된다. 하반기 대학생 분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인원 36명보다 많은 47명이 선발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을 통해 구례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평생교육과(061-780-2802)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